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2년도 제51호

※ 체육시민연대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2023년 체육예산 1조 6398억.. 장애친화 X 전문체육 X 스포츠테크 ↑

전영지 스포츠조선 기자

### 대한체육회

“국가스포츠정책위 구성에 체육회 적극 역할해야”... 이사들 촉구

최송아 연합뉴스 기자

### 연세대학교 체육학과

‘체육특기생 입시비리’ 의혹 연세대 교수들, 대법서 무죄 확정

류인선 뉴시스 기자

### 겨울실내 스포츠

탁구, 테니스, 클라이밍... 겨울 실내스포츠, 부상 막으려면

강석봉 스포츠경향 기자

### 부산교사노조

부산교사노조 “0교시 체육, 976% 교사 반대”

김준용 부산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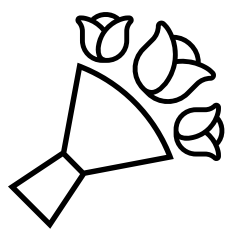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체육시민연대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의 E-mail 정보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예정입니다.

E-mail 주소나 기타 정보의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sports-cm@hanmail.net](mailto:sports-cm@hanmail.net) / 02-2279-8999

# 문체부 2023년 체육예산 1조 6398억... 장애친화X전문체육X스포츠테크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2023년도 예산이 6조7408억원으로 확정됐다.

문체부는 24일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7076억원보다 332억원 증액된 6조 740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68억원)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14억원) 영상물 자체등급 분류제도 도입(30억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55억원) 등이다.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문화접근 기회 보장 및 국정과제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전분야에서 장애인의 창작, 접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늘려, '장애인 친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모두의 스포츠'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예산이 2022년 275억원에서 내년 281억원으로,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예산이 567억원에서 601억원으로 늘었다. 수어통역, 점자번역 등 특수언어 진흥 기반 조성사업 예산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5억원 증액됐다. 장애-비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예산이 852억원으로, 333억원 상향됐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은 총 10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명 확대, 지원금액은 월 9만 5천원으로 1만원 증액됐다.

문체부는 또 민간의 잠재력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케이(K) 콘텐츠 펀드'가 2022년보다 512억원 증액된 1900억원 편성됐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도 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723억원 증가했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과 콘텐츠의 융합 인력양성에 57억원, 신기술 융합콘텐츠 활용 공연 콘텐츠 개발에 55억원을 지원한다.

체육 분야에서도 신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스포츠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지난해 50억원에서 대폭 증액된 125억원을 투입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포츠케어 서비스 기술 개발 예산도 37억원으로, 지난해 15억원에서 24억원 증액됐다. 지역사회기반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5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0억원이 늘었다.

문체부는 또 K컬처의 매력을 전세계로 확산, 문화번영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 등 수출거점을 5곳으로 확대하는 예산으로 전년보다 45억원인 늘어난 102억원이 편성됐다. K콘텐츠 엑스포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예산도 40억원 증액됐다. 체육 분야도 전문선수 지원 예산이 대폭 늘었다. 우수선수 양성 지원에 117억원이 늘어난 1247억원이 편성됐다. 국가대표선수 훈련수당을 하루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트레이너 고용 기간을 1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전문체육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주최 단체 및 종목단체 지원도 1979억원으로 244억원 증액됐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에는 151억원이 증액된 226억원이, 2024년 부산세계탁구선수권 지원 예산은 4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체육 부문에 1조 6398억원(2022년 대비 +15.1%), 문화예술 부문에 2조3140억원(2022년 대비 +7.3%), 콘텐츠 부문에 1조1738억원(2022년 대비 +2.5%), 관광 부문에 1조2339억원(2022년 대비 +14.9%)이 편성됐다.

문체부는 예산 확정 후 "내년 예산은 민간의 자유·창의 정신이 바탕이 된 K컬처에 전세계인의 갈채가 쏟아지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문화매력국가, 문화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문체부는 국민의 땀방울이 맺힌 세금을 적기에 집행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계속 힘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 “국가스포츠정책위 구성에 체육회 적극 역할해야” 이사들 촉구

대한체육회 이사들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 관련해 체육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체육회는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6차 이사회를 개최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체육회가 전한 이사회 내용에 따르면 이날 기타사항 논의에서는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체육인과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대한체육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역할 강화 요구가 이어졌다.

이 사안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 추진에 체육회 등 체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되 내년 2월까지 문체부와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진행 경과를 보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사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체육회는 밝혔다.

체육회는 "문체부와 여러 현안을 협의 조율하는 회의체를 통해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적극적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6년 열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대한국라테연맹과 대한주짓수회의 정회원 승격과 대한요가회의 준회원 승격도 의결됐다. 정회원 승격 대상은 차기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최종적으로 거쳐야 한다.

# ‘체육특기생 입시비리’ 의혹 연세대 교수들, 대법서 무죄 확정

연세대학교 체육학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들에게 선고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세대 체육학교 교수 이씨 등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함으로써 최종 합격하도록 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 등이 사전에 특정 학생 7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평가에서 합격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입력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로 인해 합격권 지원자 22명이 불합격 결과가 도출되도록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했다.

1심은 "미리 합격 내정자들을 정해놓고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류평가 점수 차가 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최종 합격자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 선고했다.

2심은 사전에 합격자가 내정됐다는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내정자가 사전에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 탁구, 테니스, 클라이밍... 겨울 실내스포츠, 부상 막으려면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2022.12.16

야외운동이 힘든 겨울에는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실내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난다.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클라이밍 또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져 날씨와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실내운동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야외운동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에 방심하기 쉽지만 이러한 실내운동 역시 활동량이 많고 관절과 근육을 폭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자칫 부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켓 하나로 가능한 실내스포츠, 알아보면 다친다

작은 공을 실 새 없이 주고받는 탁구는 어깨와 팔, 손목 동작이 많고 격렬하다. 빠르게 움직이는 공을 받아내기 위해 팔을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어깨힘줄과 견봉 사이에 마찰이 발생해 충돌 증후군이 생기고 회전근개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켓을 여러 방향으로 트는 탁구의 특성상 손목 염좌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어깨나 다리를 함께 쓰지 않고 팔만 사용하는 초보자들이 손목 부상을 입기 쉽다.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도 어깨와 팔을 많이 쓰는 운동이다. 라켓을 위로 들어 옆이나 아래로 강하게 내려치는 스매싱 동작을 반복하면 팔꿈치 과사용으로 테니스엘보를 겪기도 한다. 팔꿈치 바깥쪽 뼈와 근육이 만나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주먹을 쥐 상태에서 손목을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있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운동 전후에는 어깨와 팔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좋다. 적당한 운동 시간을 지키며, 정확한 자세를 구사하고 과도한 힘을 주지 않는다. 고무공 등을 이용해 평소 손목과 팔꿈치 사이 근육과 악력을 강화하면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된다.

목동힘찬병원 최경원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테니스 엘보가 의심되면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며 “통증 초기 얼음찜질을 하고, 손목을 써야 할 때는 테이핑을 하거나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탁구나 테니스는 공을 받아내기 위해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점프 및 착지를 반복하면서 순간적으로 발목 염좌가 발생할 수 있다. 관절이 정상 운동 범위를 넘어 비틀리거나 접질려 인대나 건(힘줄)이 손상되는 발목 염좌는 급성 통증을 야기한다. 심한 경우 관절 활액막이 찢어지고 발목 관절 연골까지 손상될 수 있다. 스텝 시에는 가급적 발에 힘을 빼고 가볍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부상이 심하지 않으면 얼음으로 냉찜질을 해주고 붓대로 압박해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완화된다.

전신 사용하는 클라이밍, 몸에 맞게 즐겨야

맨손으로 인공 암벽을 오르는 클라이밍은 근골격을 강화하고 다이어트 효과도 크다. 집중력을 키워주고 짜릿한 성취감까지 맛볼 수 있어 계절과 관계없이 남녀노소 즐기는 인기 스포츠다. 특히 나쁜 자세와 생활 습관의 반복으로 척추나 골반이 틀어지고 주요 관절 부위의 근력이 약해졌을 때 좋은 운동이다. 암벽에 매달려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코어근육도 자연스럽게 단련된다.

클라이밍은 각자 신체 특성과 체력에 맞춰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 초보자나 근력이 약한 사람, 노약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다만 팔로 매달려 체중을 버티며 홀드를 이동하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기 몸이 버티는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암벽에 매달리기 위해 어깨를 많이 쓰는 클라이밍의 특성상 너무 많은 힘이 어깨에 가해지면 염좌나 심한 경우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최경원 원장은 “회전근개파열은 자연치유가 어려워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팔을 살짝 올려도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라며 “운동 후 통증으로 냉찜질과 휴식을 취했는데도 낫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팔로 매달려 체중을 버티는 동작이 많아 팔꿈치 부상도 조심해야 한다. 팔꿈치 건염은 과도한 움직임으로 팔꿈치에 붙어있는 건들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발생한다. 움직일 때 통증이나 삐걱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휴식을 취해준다. 통증 초기에 충분히 쉬고 냉찜질을 하면 도움이 된다. 테이핑 또는 부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부산교사노조 “0교시 체육, 97.6% 교사 반대”

부산시교육청이 2024년부터 전체 초, 중학교에 도입 예정인 ‘0교시 체육’(부산일보 12월 22일 자 10면 보도)에 현장 교사들이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나섰다. 수업 준비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부산교사노조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부산 초,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0교시 체육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사 654명 중 630명이 0교시 체육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현장 교사들은 2024년부터 도입될 0교시 체육에 대한 현장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0교시 스포츠 활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 없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528명(80.7%)이었고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교사 126명(19.3%)에 불과했다. ‘0교시 스포츠 활동에 대해 교육청에서 4차례에 걸쳐 학부모와 교원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38명이 ‘들어본 적 없다.(97.6%)’,고 답했고 16명이 ‘들어본 적 있다.(2.4%)’ 고 답했다.

현장 교사들은 0교시 체육활동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시수로 잡히지 않지만 수업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대부분 교사가 주당 21시간 이상을 수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산교사노조 윤미숙 위원장은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내세워 당선된 교육감이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업무경감 정책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0교시 스포츠활동 등의 사업을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치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진짜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사본질업무회복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2024년부터 부산 초등, 중등 학교 전체에 수업 전 체육활동 시간 20분을 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통상 등교 시간인 오전 8시 30분 부터 오전 8시 50분까지 20분간 수업과는 별도의 체육 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걷기, 운동장 뛰기부터 라인댄스, 플래시몹, 브레인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생들의 수업 전 신체, 두뇌를 깨우고 사회성, 인성을 기른다는 취지다.

# 주간 스포츠 소식

테니스 소녀→LPGA 88회 우승 전설, 83세로 타계 “女 위한 스포츠”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805691&code=61161511&cp=nv>

양구군, 올해 스포츠마케팅 경제 유발효과 186억원 성과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6047700062?input=1195m>

제주시, 미리내공원 체육시설 기능보강공사 추진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3409>

충북교육청, 학교 체육 여건 개선에 144억 원 지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982452&ref=A>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대상 응급처치·심폐소생술교육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2122612114184523>

체육기자연맹, 내년 1월10일 골프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https://www.news1.kr/articles/4905706>

과천시공사, 최우수 장애인친화체육시설 선정

<https://www.ajunews.com/view/20221226172517748>

의왕 백운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획득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894>

충남노인체육회 “스포츠로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2858>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